

제 40차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 현안과 시사점

2017년 5월 베이징 회의 결과 소개



신형철 (극지연구소 정책협력부장)
• 서원상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

순서

- 남극조약 체계 배경
- 환경보호위원회 (CEP)
- 정책/법/제도 분과 (1분과)
- 과학/운영/관광 분과 (2분과)
- 중국 특이 동향
- 생각할 거리

배경

남극 거버넌스 관할 국제협약; 1959년 서명 개방, 1961년 발효 (1957/58 IGY 계기)

원초 서명국 12개국

현재; 53개 acceding states, 29개 consultative parties

환경보호의정서 (environmental protocol); 비준국 2017년 6월1일 기준 39개국 예상 (말레이시아 비준 기탁 완료, 스위스 6월1일 비준 예정, *터키 비준 준비 완료라고 사무국 보고

중국 베이징 40차 협의당사국회의

중국 부주석 Zhang Gaoli가 참석 개회사; 남극의 평화적 이용, 남극조약 정신의 존중, 동등 자격 협의와 상호 협력, 과학활동의 자유 등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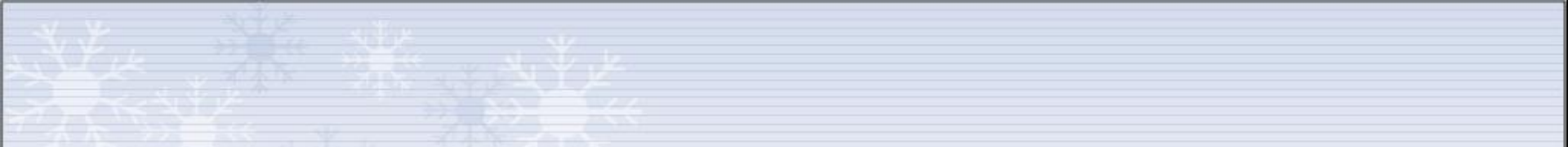
제1일 남극 sustainable use 심포지엄 급조 (중랑급 각국 정부인사, 연구기관장 급 연사 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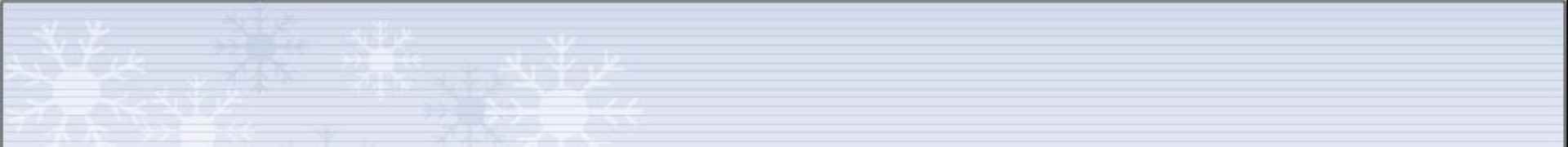
* 북한 초반 2-3일 참석 (현지 공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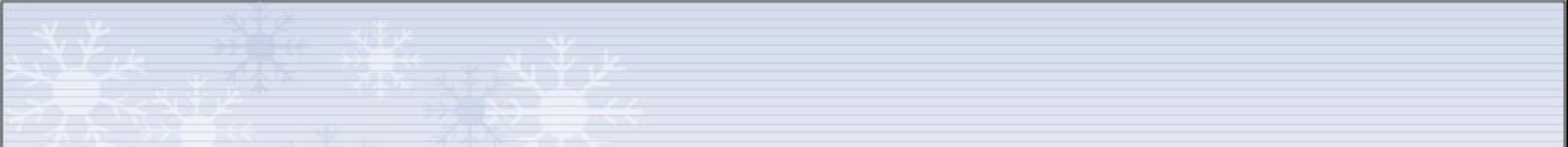


第四十届南极条约协商
XL Antarctic Treaty
中国 2017年 CHINA · 2017









환경보호위원회

다년간 업무 전략 계획; 업데이트

- ‘CEP의 우선순위별 업무계획’의 1순위와 2순위에 포함된 이슈들과 관련된 과학 수요를 목록으로 제시
- 남극 환경포털 (Antarctic Environments Portal) 사이트의 운영 주체와 자금 수급, 자료 관리에 관하여 논의, 2018년 중반 이후 남극과학위원회(SCAR)가 운영

남극환경과 기후변화 영향

- 빙하 후퇴, 빙봉 후퇴, 해빙 변화, 빙하의 붕괴 등 빙권 변화 관련 연구프로그램 활성화 주목
- 기후변화 대응 업무프로그램(CCRWP)의 실행 검토를 위한 부속그룹 SGCCR (Subsidiary Group Climate Change Response)의 설치; Birgit Njaastad (노르웨이) 의장 지명

환경보호위원회

환경영향평가 (EIA)

- ‘남극환경을 손상시키는 대형사업’의 진행을 막기 위한 ‘screening and scoping’ 과정의 적용 필요성
- 이태리 마리오쥬켈리기지 근처 지반 활주로 건설에 대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서(CEE) 최종안 제출, 활주로 건설 가능

구역보호와 관리계획

- ‘남극특별보호구역(ASPA)/남극특별관리구역(ASMA)의 사전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안’ 채택, ASMA template 개발
- 중국 제안 ‘Dome A지역의 관리와 보호를 위한 행동 강령 초안 개발’ 지지, 초안 보완, 결의한 채택
- 남극 유산 관리 지침 개발 위한 회기간 협의체 2017/18 회기 2차 운영 * 세종기지 역사관 지정 기다려야

환경보호위원회

검역과 외래종

- 문서 제출, 각다귀 확산 방지를 위한 표준 모니터링 및 박멸 프로그램을 당사국들이 공동 개발하고 연구에 참여토록 독려해 줄 것

구역보호와 관리계획

- ‘남극특별보호구역(ASPA)/남극특별관리구역(ASMA)의 사전 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안’ 채택, ASMA template 개발
- 중국 제안 ‘Dome A지역의 관리와 보호를 위한 행동 강령 초안 개발’ 지지, 초안 보완, 결의한 채택
- 남극 유산 관리 지침 개발 위한 회기간 협의체 ICG를 2017/18 회기 2차 운영 * 세종기지 역사관 남극유산 지정 기다려야

정책/법/제도 분과

협력적 남극사찰

- 문서 제출 (네덜 한국 미국), 회원국 큰폭 공감대, 협업 모델에 대해 시행 가능한 대안 제시까지는 이르지 못함
- 그동안 사찰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과학기지들, 그 외 선박과 비정부 민간활동과 시설, 남극특별보호구역, 사적지 등도 사찰 대상에 포함하도록 노력
- ICG 활동기간 연장; 미국 거부감, 당사국들 피로감
- 비공식 자발적 협의 그룹으로 1년 더 활동하기로 (미국, 칠레, 아르헨, 프랑스 등 설득)
- 기지들의 사찰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동안 사찰 대상이 되지 않았던 곳을 검색하기 쉬운 사용자 친화적 웹기반 데이터 베이스를 사무국이 개발하게 될 것
- 예고 없는 단독사찰은 조약이 부여한 당사국 권리라는 견해*

정책/법/제도 분과

협의당사국 지위 인정 기준

- 남극기지 건설이 ‘남극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연구활동 실시’의 전제 조건은 아님
- 협의당사국 지위 신청국(TPrCS)에 대한 평가를 위해 충분한 시간 필요 : 차기 ATCM 120일전 서류제출 필요
- 과학 연구활동에 대한 계량적 평가방법 수립 필요

로스해 해양보호구역 승인

- 로스해 MPA는 과학에 기반한 해양보전 의사결정을 강화하는 남극조약체제의 성과
- 제35차 CCAMLR에서 채택된 로스해 해양보호구역의 설정에 대한 결의 채택

정책/법/제도 분과

배상책임(Lia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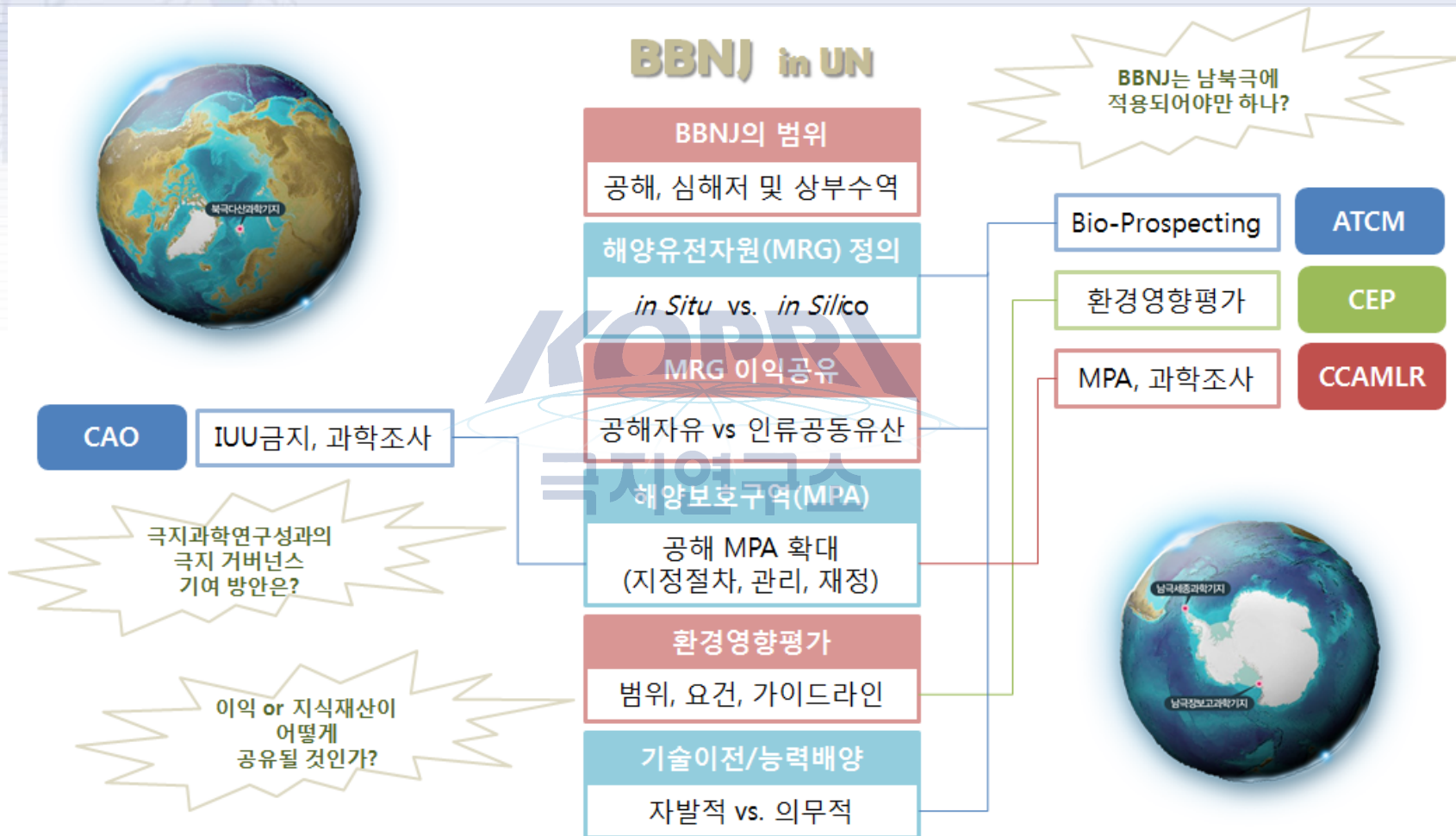
- 러시아, 법률 제50호(러시아 국민과 정부기관의 남극활동규제) 개정을 통해 제6부속서 수락
- 현재 모두 13개국(핀란드, 페루,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뉴질랜드, 노르웨이, 남아공, 호주, 러시아) 비준
- 재정보증제도 논의
 - IGP&I(P&I 국제그룹): 해상활동과 관련된 오염, 화물, 승무원, 충돌, (난파선과 같은) 잔해 제거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보험프로그램을 운영 소개
 - IOPC(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 1992년 민간배상에 관한 협약(1992 Civil Liability Convention)을 계기로 국제해사기구(IMO) 산하에 설치되어 약 150여 건의 사건·사고를 처리한 경험으로 제6부속서의 적용/이행 지원
 - IGP&I의 보험상품과 IOPC의 기금제도가 남극활동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부족 우려, 관광 선박에 대한 새로운 모델 개발 필요

정책/법/제도 분과

생물자원탐사(Bio-prospecting)

- “상업적 용도 활용을 목적으로 유전자원을 포함하는 생물자원의 조사 수집 채취 활동”에 대한 이익공유 이슈
- 뉴욕의 BBNJ 논의와 남극의 Bio-prospecting 상관성
 - BBNJ 논의 동향 주목하되, 남극 적용여부는 ATCM의 결정 사항
 - BBNJ 결과가 남극조약 undermine 불가
 - BP의 경우, “모든 유전자원”이 이익공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남극의 독특함 (uniqueness)
 - ICG 제안과 반론; ATCM에서 ICG 해박야 소용없어, 차라리 ATCM 정부대표들 모두 뉴욕에서 만나자
 - 사무총장이 BBNJ에 옵서버 초청 받았으니 참석하기로 함

(참고) BBNJ and Polar Region



과학/운영/관광 분과

남극에서 안전과 운영

- 무인기 안전 (100미터 이내 착륙 금지), 큰 현안, 회기간 협의체 ICG 운영하기로
- 비정부 민간단체 활동이 국책 과학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 폴라코드, non-SOLAS 선박에 대한 관리, 큰 관심사
- 수색과 구조 (SAR) 워크숍 2019년 뉴질랜드 개최
- 미국 남극점 Amundsen Scott 기지 겨울응급 환자 수송 사례 보고

과학 운영 관광 분과

과학

- 빙붕 붕괴, 빙하 후퇴 관련 연구가 큰 흐름 형성
- 이는 남극조약 구역관리에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함
- 대부분 비당사국인 다수의 남극연구 후발주자가 자신들의 남극 활동을 선전하고 또한 문서로 제출 (루마니아, 터키, 중남미 일부 국가)
- 각국 종장기 남극연구정책 비교로 협력 공간을 발굴할 필요 지적 (영국과 호주가 주장)

SCAR 특별 강연

○ 5.24(수) 남극과학연구위원회(SCAR) 뮤즈 프라이즈 수상자 뉴질랜드 Tim Naish 교수가 'UN 파리협정이 남극에 의미하는 바'에 대해 기조강연

- 남극빙상의 붕괴와 소실은 전지구 미래 해수면 상승에 큰 위협이며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음. 파리협정이 체결될 때 기온 상승폭 한계를 섭씨 2도 상승으로 제한했지만 지난 IPCC 2013 보고서 이후 후속 연구에 의하면 남극빙상의 안정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임계점을 1.5-2도 상승으로 예측하고 있어 기온상승폭 2도는 위험하고 상승폭을 1.5도 안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

행정 사항

다음 회의

- 에쿠아도르 (체코와 순서 교체)

사무국장

- 우루과이 Alberto Lluberas 알베르토 루베라스 사무국장 당선 (우리나라도 지지)
- *CEP 부의장 Polly Penhale (미국), Kevin Hughes (영국)으로 교체

중국 특이 동향

녹색 남극탐사 (Green Exped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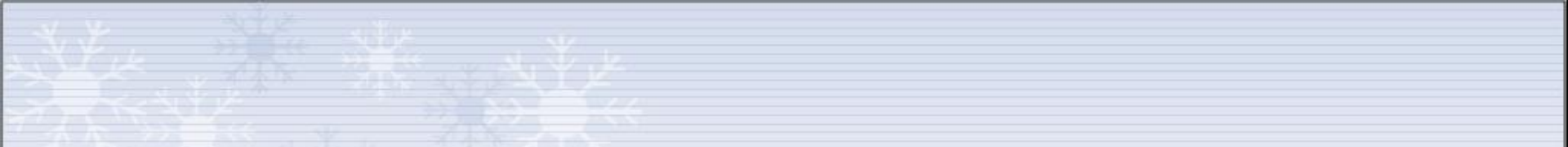
- 과연 새로운 개념인지, 계속 논의될지는 의문
- 결의안 유도, 통과

중국 인식 저변 sustainable development 확인

- 첫날 급조한 심포지엄 (유명연사 초대), 일정 지장 무릅쓰고
- 고위급 정부 인사 치사와 발언에 반영
- 이어 발표된 ‘중국 남극활동과 계획’에도 그대로 담김

남극활동에도 반영되는 중국의 ‘과학굴기’ 정책

- 중국 정부 극지부서 CAA(극지고찰판공실, 국가해양국 SOA 소속), 6개 해외 극지연구기관(미국, 러시아, 독일, 노웨이, 칠레, 알헨티나)과 협약 체결
- 짜임새는 덜해도 선택한 분야에서 세계 정상권 추구



XL ANTARCTIC TREATY
2017
CONSULTATIVE MEETING
22 May—1 June 2017, Beijing, China



On 18 November 2014, President Xi Jinping extended his regards to the Chinese expeditioners on board of R/V Xuelong which was resupplied in Hobart, Australia.

Take home message

목표 과제 2018

- 환경보호위원회;외래종, 설문조사, 정책 조언과 실행 권고안, 과학연구 (창궐 정도, 유입배경), COMNAP 채널 활용
- 남극사찰; 비공식 협의 그룹 성실 운영, 권고안과 대책 창출, 다 음 당사국회의 보고

우리나라 정부와 남극프로그램 대응

- 무인기 관리 지침 대응, 행동 필요
- 세종기지 역사관 완성 후 남극유산 등록 준비
- 남극환경포탈 대응, 공동기고 고려, 현안 발굴 필요
- 폴라코드 2 관련 상황 전파와 대응